

오래된 만남

이민재 (2007년 제3회 5·18문학상 수상작)

■ 내용 요약

- * 1장. 쇼핑: 제수용품을 파는 어느 쇼핑상가. 60대의 진숙과 20대의 유정의 초 한 자루를 놓고 언쟁을 벌인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각기 다른 세대 간 갈등이 드러난다.
- * 2장. 악몽.: 그 날 밤, 진숙과 유정은 똑같은 악몽을 꾀다. 꿈속에서 서로를 발견한다.
- * 3장. 정신과 상담 ①: 진숙과 유정은 몇십년 동안 계속되는 악몽의 심각함을 느끼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간다. 그리고, 그 상담을 통해 두 여자가 공통으로 기억하는 상처를 되새긴다.
- * 4장. <어제로>: 과거로 돌아가는 상징적인 공연. 공포스럽다.
- * 5장. 귀향: 초산을 앞둔 30대의 진숙은 남편 강우와 함께 고향 광주로 내려와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큰 어머니 댁에 머무는 미진은 내일 있을 유치원 소풍을 준비하며 장을 본다. 같은 시각, 작전에 투입된 인호는 심한 멀미에 시달린다.
- * 6장. 1980년 5월 18일, 소풍: 장을 보러 시내에 나온 진숙과 강우, 소풍을 나온 미진은 5. 18 무력 진압에 휘말려 비극의 현장에 놓여진다.
- * 7장. 탈출: 무자비한 살육을 견디지 못해 탈영한 인호는 옛 연인인 미진을 만나고, 홀로 숨어 있던 진숙과 만난 강우는 계엄군 복장을 한 인호를 기절시킨다. 이때, 이들을 부르는 노인의 손짓을 따라 위협에서 벗어나 무사히 탈출한다.
- * 8장. 가족: 진숙과 미진을 죽은 두 딸인 홍과 윤으로 착각하는 실성한 노인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쉬는 네 남녀. 서로를 불신하는 갈등이 폭발한다.

* 9장. 생일: 생일만 함께

치르고 떠나라는 노인의 권유로 생일상을 마련하는 진숙과 미진. 생일 상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고백하고, 노인은 모든 죄는 자신이 질 테니 살아 남은 사람은 열심히 살라며 이들을 보듬는다. 이때, 피투성이 된 노인의 조카가 등장하고!

* 10장. 비극: 노인의 조카가 계엄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평온한 가정을 침범한 계엄군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씩 목숨을 잃는다. 결국, 마지막 홀로 남은 진숙은 극심한 진통을 느끼며 비극의 현장에서 홀로 새 생명을 출산한다.

* 11장. <오늘로> 현재로 돌아오는 상징적인 공연. 희망이 느껴진다.

* 12장. 정신과 상담 ②: 진숙과 유정의 기억이 끝나고, 현재로 돌아온다. 두 여자는 여전히 티격태격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함을 느끼며 여운을 남긴다.

* 13장. 망자들을 위한 곳, 놀이판: 망자들을 위한 한바탕 곳이 벌어진다. 곳을 위해 공을 들고 있던 진숙과 유정이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눈다.

* 14장. 뒤풀이, 수다: 진숙과 유정은 진숙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다. 현재 자신의 세대가 처한 고민과 갈등을 대화를 통해 조화로운 미래를 모색하며, 편안한 잠을 자기를 바라며 함께 잠이 든다.

■ 때

현대/1980년 5월

■ 장소

현대 서울/1980년 5월의 광주

■ 등장인물

* 진숙(여. 30대 초반/60대 초반)

: 5.18 민중항쟁에서 남편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상처를 지니고 사는 인물.

* 유정/미진(여. 20대 후반/20대 초반)

: 유정으로 분했을 때에는 풍족하고 자유분방하고 안하무인의 신세대 아가씨로 전생이었던 미진이 5.18 민중항쟁에서 겪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미진으로 분했을 때에는 참하고 양전한 그 시절 최고의 신부감으로 여겨지던 성격으로 5.18 민중항쟁에서 애인과 소중한 이들을 잃고 사망, 현대의 유정으로 환생.

* 강우(남. 30 중반)

: 진숙의 남편, 냉정하고 철저한 지식인.

* 인호(남. 20대 초반)

: 미진의 애인, 심약하고 나약해서 무력진압을 수행하지 못하고 탈영.

* 노인(남. 70대 중반)

: 사고로 죽은 두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실성한 노인, 진숙과 미진을 두 딸로 믿음.

*** 노파**(여. 70대 초반)

: 두 딸을 잃고 세상사 희비극에 초연한 자세로 담담하게 살아가고 있음.

*** 조카**(남. 30대 후반)

: 늙은 노인과 노파를 자식 대신 모시고 사는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

- 주인, 행상 할머니, 행상 총각, 명선, 계엄군, 청년, 남의사 목소리, 여의사 목소리
- 저승사자들, 도깨비들, 영혼들, 예인들(한 무리의 앙상블로 반복 출연 가능)

■ 시놉시스

진숙은 19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상처를 지니고 사는 60대 중년의 여인이다. 늘 세상사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며 우아함과 고상함을 지닌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망자를 위한 곳을 준비하기 위해 제수용품 집에서 쇼핑을 하다가 자신이 보고 있던 초를 상의 없이 채 가는 20대 처녀 유정과 시비가 붙는다. 진숙과 유정은 살아 온 역사적 환경부터가 다른 만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며 첨예한 세대 간 갈등을 보인다.

하지만 진숙과 유정은 똑같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 몇 십 년 가까이 꾸어온 똑같은 악몽이 바로 그것. 이 악몽으로 인해 현실의 중요한 문턱에서 늘 곤욕을 치르고 마는 그녀들에게 이 악몽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는 연속된 역사의 필연적인 기억이며, 부채의 식이다.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숙과 유정은 고민 끝에 정신과를 찾는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여자는 똑같은 날의 똑같은 기억을 떠올린다.

1980년 5월 17일 토요일의 광주는 날씨가 맑다. 바로 며칠 앞으로 출산을 앞둔 만삭의 젊은 시절 진숙은 시부모님을 뵙고 아이를 낳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남편 강우의 고향인 광주까지 찾아온 것이다. 남편 강우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고향을 떠난 지 20여 년 동안 한번도 고향을 찾지 않으며 완벽한 서울내기로 살고 싶어 하는 지식인이다. 같은 시각, 유정의 전생인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생활을 하던 암전한 아가씨 미진은 실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 큰어머니 댁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이 순간, 미진의 옛 연인인 인호는 계엄군이 되어 이동하는 도중 극심한 떨미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일요일. 시부모님께 맛있는 식사를 지어 드리기 위해 장을 보러 시내에 나선 진숙과 강우, 친구 명선네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봄 소풍을 떠났던 미진은 무자비한 무력 진압의 비극에 휘말린다. 강우의 절친한 벗인 행상총각은 계엄군에게 이죽대다가 맞아 죽고, 미진의 친구인 명선은 계엄군으로부터 아이들을 막아서다가 생긴 상처로 숨을 거둔다. 이 시각, 인호는 무자비한 살육의 무력 진압에 염증 느끼고 이를 견디지 못해 탈영한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떠난 강우 때문에 홀로 남은 진숙 곁에 함께 숨어 있던 미진은 옛 연인인 인호와 웃지 못 할 재회를 하게 된다.

다시 계엄군들의 진압소리가 들려오고, 진숙과 강우, 미진과 인호는 자신들을 부르는 한 노인의 손짓에 따라 그 노인의 집에 몸을 숨긴다. 70대 중반으로 죽을 날을 받아 놓았다는 노인은 오래 전 뱃사고로 잃은 두 딸에 대한 충격과 그리움 때문에 실성한 상태이다. 노인은 진숙과 미진을 죽은 두 딸이 돌아온 것이라 믿고, 이들을 극진히 보살핀다. 하지만, 한데

모인 네 남녀는 서로 쉽게 화합할 수 없다. 특히 지식인인 강우와 계엄군인 인호는 서로 치열한 감정싸움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생일상을 차려 달라고 조르고, 생일만 함께 치르고 떠나려는 노인의 만류에 못 이겨 함께 하룻밤을 보낸다.

노인의 억지로 차려진 생일 상. 노인은 진숙과 미진을 마치 죽을 두 딸을 대하듯 극진히 아끼고 챙긴다. 강우와 인호 역시 사위라고 부르며 보듬는다. 진숙과 미진은 오랜만에 따뜻한 부모의 보호를 느끼며 노인의 손을 잡지만, 이런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해하는 강우는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도 이렇게 태연하다며 울분을 터뜨린다. 강우의 울분을 들으며, 남은 사람들은 하나씩 비극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비겁한 죄들을 고백한다. 그리고 노인은 이들의 상처를 하나씩 모두 안아주며, 살아 남은 이들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일러준다. 그리고 이때! 약주를 사러 나갔던 노인의 조카가 피투성이 된 채로 계엄군들에게 밀려 집으로 들어온다.

조카는 계엄군의 총칼 아래 목숨을 잃는다. 따뜻한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던 생일상은, 순식간에 피로 물든다. 노인은 두 진숙과 미진을 보호하려다 계엄군의 총을 맞아 숨지고, 노파는 살인을 저지르려는 인호를 만류하다가 인호의 오발탄에 맞아 죽는다. 분노에 휩싸여있지만 물리적인 힘은 없는 강우, 노파를 죽였다는 충격에 휩싸인 인호, 계엄군에게 대들던 미진은 모두 계엄군의 총을 맞고 생을 마감한다. 그리고 이 잔혹한 살상의 현장에서, 진숙은 산통을 느끼며 홀로 미래를 살아 갈 새 생명을 출산한다.

정신과 치료가 끝나고 또 다시 마주친 진숙과 유정은 또 다시 티격태격하지만, 서로 어딘가 익숙함을 느끼고 애잔한 감정에 빠진다. 망자들을 위한 한판 국이 펼쳐진다. 당시의 비극과 참상을 달래주는 민족의 기운이 담긴 놀이판이 벌어진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화합을 상징하는 천 땅기 행사장에서 진숙과 유정은 또 다시 만난다. 뒤풀이로 수다를 즐기며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고민을 담담하게 터놓는 그녀들. 서로 사는 모습을 다르지만, 과거로부터 각인된 공통의 상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그녀들은 더 이상 갈등하거나 반목하지 않는다. 공통의 기원과 뿌리가 하나임을 알게 된 그녀들은 악몽이 아닌 편안한 잠을 위해 함께 잠든다.

1장 · 쇼핑

, 사람들이 복적거리는 쇼핑거리.
 무대 뒤편의 유리막(쇼윈도) 뒤로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실루엣 보인다.
 시끄럽게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려온다.
 무대 중앙 진열대에 물건 놓고 손님 기다리는 점원 보인다.
 주인은 머리가 희끗한 40대 정도의 여자로 계량한복을 입고 단정히 서 있다.
 제수 용품 파는 곳인 듯 곳곳에 꽃무더기와 다양한 모양의 초가 진열되어 있다.
 주인이 커다란 초에 불을 붙인다.
 그 순간, 무대 양편에서 60대의 진숙과 20대의 유정 동시에 등장한다.
 고상하고 기품 있는 진숙의 걸음걸이와 경쾌하고 발랄한 유정의 모습 대조된다.

주 인 어서 오세요. 망자의 길을 달래 줄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망자의 어두운 발길을 밝혀 줄 초 한 자루 준비하세요. 어서 오세요.

진숙, 온화한 표정으로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 눈웃음 주고받고.
 유정, 주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물건 저 물건 건드리며 구경한다.

진 숙 좋은 초 한 자루 있으면 소개 해 주세요. 아주 좋은 것으로요. 여러 사람 가는 길 밝혀 줄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건강한 것으로.

주 인 (초 한 자루 가리키며) 초의 튼튼한 기둥 마디마디마다 한 점 한 점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쓴 초랍니다. 마지막 남은 물건이지요.

진 숙 (초를 들여다보며) 귀한 것이로군요. 어차피 불에 타 녹으면 사라질 것, 이렇게 공들여 편지를 새겨 놓다니.

주 인 진심이지요. 가는 사람,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해 주고 싶은 진심.

진 숙 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군요. 이걸로 주세요.

이때, 유정이 갑자기 그 초를 채 간다.

유 정 우와, 이거 근사한데? 이 정도면 되려나?

유정, 초를 들여다보며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주인에게 내민다.

진숙, 그런 유정을 몹시 불쾌하게 보고 있고.

주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게 서 있다.

유 정 뭐 하세요? 계산 안 해요? 이걸로 할게요.

주 인 저, 손님...

진 숙 (노기 띠, 하지만 고상한) 이봐요, 아가씨!

유 정 (힐끗 보며) 에?
 진 속 그 초 내려 놔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유 정 (꿈틀) 경우 없는 짓?
 진 속 내가 보고 있던 물건이에요. 그러니 어서 놔요.
 주 인 그러시죠, 손님. 이쪽 손님이 먼저 보고 계신 물건입니다. 손님께는 다른 좋은 물건을 소개해 드리죠.

, 묘하게 불쾌한 표정과 건들거리는 몸짓으로 천천히 진속 앞까지 다가온다.

유 정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 아시죠? 그렇게 탐나는 물건이었으면 진속 잡으셨어야지요.
 진 속 지금 사려고 했어요.
 유 정 먼저 계산을 하자고 한 건 저예요.
 진 속 내가 보고 있는 물건을 아가씨가 채 갔죠.
 유 정 누구도 구입하지 않은 물건인 이상, 권리는 먼저 잡고 돈을 치른 나에게 있죠. 이 초를 선택할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기회였으니까요. 난 그 기회를 잡았어요. 늙어 지친 당신의 몸뚱이 보다 훨씬 더 날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아니겠어요?
 진 속 (콧방귀) 민주주의며 자본주의가 무슨 말인지나 알고 하시는지?
 유 정 능력 있는 만큼 일해 벌고. 능력 되는 이가 먼저 선택하고 셈을 하고. 간단하죠.
 진 속 (기가 막힌) 말이 안 통하는군!
 유 정 그건 상황을 이해 못 하는 당신도 마찬가지!
 진 속 예의가 뭔지도 모르는 풋내기 주제에!
 유 정 케케묵은 노파의 예의는 이십년 전이나 통했죠.

팽팽한 두 여자의 신경전.

진속, 천천히 유정 주변을 돌며 훈계한다.
 그러자 유정도 진속을 중심으로 뱅뱅 돈다.
 두 여자의 걸음이 무대 위에 어지러운 동심원을 그린다.
 진속은 시종일관 우아하고 고상한 말투로,
 유정은 버릇없고 건방진 태도로 일관한다.

진 속 기본적인 예의도 지킬 줄 모르는 아가씨와 입씨름을 하는 내가 더 한심하군요.
 유 정 당신들이 말하는 예의는 이미 사라졌어. 당신들의 기준에 우리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지긋지긋 하니까!
 진 속 우리 때 같으면 상상도 못할 무례야!
 유 정 우리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죠.
 진 속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모두 가질 수는 없어요! 물건 하나를 가지는 일에도 순서와 도덕이라는 게 있는 법!
 유 정 글썄, 그런 소리는 노인정 친구들한테나 가서 하시라니까요! 가지고 싶으면 가지면 되죠! 가질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을 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회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난 그 약속의 땅 위에서 태어났다고요.
 진 속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거나 해요?
 유 정 (지겹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아~ 그만 그만! 또 그 소리! 시대가 바뀌고 세

월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었는걸. 당신들 땀과 눈물로 이 땅이 지켜졌네, 이 역사가 이루어졌네 하는 고전은 이제 그만 치워요! 안 그래도 그것들을 감사하기 위해 코 찢찢거리던 애들 때부터 죽어라고 위인전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피같이 아까운 내 돈을 당신들을 위한 세금으로 바쳐 드리고 있으니까! 사춘기를 못 벗어난 어린 아이들도 아가씨 보단 말이 잘 통하겠어요!

진 속 한참 전에 갱년기는 지나갔어야 정상일 텐데, 여전히 극복을 못 하셨나 보죠?

유 정 뭐예요?

진 속 틈만 나면 땀이 나고 열이 오르고, 거기에 와락와락 열불까지 올라온다죠?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냈죠. 난 영문도 모른 채 당하기만 했고. 지금 보니 아줌마도 그때 히스테리에 절어 살던 우리 엄마랑 비슷하네요. (능글대는) 폐경, 갱년기 우울증!

**, 똑 끊기는 대화.
두 여자 사이에 냉랭한 침묵 감돈다.**

진 속 (목청이 터져라) 야!!

**진속, 이제까지의 고상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갑자기 욕설을 하며 달려든다.
유정의 머리채를 잡는 진속.**

진 속 이 잡년이! 야 이 배라먹을 년아! 집에 애비 애미도 없냐잉~? 이게 무슨 근본 없는 개죽보 말버릇이래잉~? 워디서 배워 처 먹었냐? 으잉?

머리채를 잡힌 유정, 기세등등하던 모습과 달리 힘을 못 쓴다.

유 정 왜 이래요! 당신 미쳤어? 여기요, 여기 아줌마가 미쳤어요! 주인아줌마! 이 정신 나간 여자 좀 어떻게 해 봐요!

내심 유정을 알뜰게 보던 주인, 호들갑을 떨면서도 최대한 느릿느릿 다가온다.

주 인 (슬로우모션처럼 느릿느릿하게) 이를 어찌~나? 그만 고정 하시~죠?

**유정, 있는 힘을 다해 진속을 떨쳐낸다.
진속, 과장되게 멀리 나가떨어지며 비명을 지른다.**

유 정 (힘들게 헉헉대며)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봐요! 갱년기 우울증에는 정신병원이 딱이거든요? 그거, 요새는 흠도 안돼요, 시간 내서 필히 좀 가보시죠? 괜한 주변 사람 잡지 말고?

진 속 뭐, 뭐라? 정신병원이라고라? 이 년이 아주 멀쩡한 사람을 미친 년 만드네잉? 니나 가라! 내가 볼 땐 정신병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제~!

**한참을 노려보며 팽팽한 신경전 벌이는 두 여자.
이윽고, 진속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본래의 고상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진 속 (우아한) 아가씨 정말 구제불능이로군.

유 정 (기가 막힌) 이런 싸이코!

, 손수건을 꺼내 얼굴의 땀을 닦으며 주인을 부른다.

진 숙 사장님, 다른 물건을 보여주시겠어요?

주 인 다른 물건을 보시겠어요, 손님? (유정 힐끗 보며) 이해하세요. 아직 나이 어린
아가씨라서 세상 물정 몰라 그럴 겁니다.

유 정 (발끈) 뭐라고요!

유정, 손에 들고 있던 초를 집어 던진다.

유 정 안사요! 안 사!

유정, 흥분해서 씩씩대며 무대 밖으로 퇴장.

진숙과 주인,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 초를 건네고 셈을 하며 악수.

악수하며 방긋 웃는 모습에서 암전.

2장 · 악몽

암전된 무대, 음산한 음악과 낮은 연기가 무대를 채운다.

어디선가 드르륵 드르륵 쇠로 바닥 긁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러 사람이 빠르고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주문처럼 들려온다.

찌지는 여자의 짧은 비명 들려온다.

조명 아주 천천히 밝아진다.

무대 오른편, 진숙이 누워 있는 침대를 천천히 밀고 들어오는 한 떼의 사람들.

3~4명 정도의 검은 갓과 검은 옷을 입은 무표정한 얼굴의 저승사자 들이다.

진숙이 잠들어 있는 침대를 이리 저리 돌려가며 천천히 무대 중앙까지 온다.

무대 왼편, 유정이 누워 있는 침대를 천천히 밀고 들어오는 한 떼의 사람들.

역시 3~4명 정도의 저승사자들.

흰 갓, 흰 옷에 빨간 피칠갑을 한 그로테스크한 얼굴들이다.

두 여자가 누워 있는 침대가 마치 의식을 진행하듯 무대 위를 빙빙 돈다.

이윽고, 무대 중앙에 두 침대가 나란히 놓인다.

, 각각 두 여자의 침대 밑에 웅크리고 숨는다.
 웅얼거리는 주문 소리 멈춘다.
 잠시의 정적 후, 진숙과 유정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다.

진 숙 (동시에) 안 돼!
 유 정 (동시에) 안 돼!

진숙과 유정, 꿈이었음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얼굴의 땀을 닦는 진숙, 가슴을 쓸어내리는 유정.
 진숙과 유정, 다시 누워 잠을 청한다.
 조명 어두워지며, 진숙의 침대 쪽만을 비춘다.
 이때, 진숙의 침대 밑에 숨어 있던 저승사자들이 하나씩 숙 일어난다.
 진숙, 공포에 떨며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잔뜩 움츠러든다.
 진숙 쪽 조명마저 점점 더 잦아든다.
 이윽고 진숙 쪽 조명 압전되며 진숙의 갈라지는 비명 소리 들려오고.

진 숙 까악~!

유정 쪽의 조명 반짝 켜지면, 비명 소리에 놀란 유정이 벌떡 일어난다.
 유정, 힘겹게 심호흡하며 다시 누우려 하는데,
 흰 옷 입은 저승사자들이 크로테스크한 괴성 지르며 동시에 벌떡 일어난다.
 유정, 미칠 듯이 소리 지른다.

유 정 저리가! 싫어! 저리 가란 말이야! 아악!

무대 전체에 낮은 조명 어지럽게 들어온다.
 저승사자들, 다시 침대를 무대 이리저리 이동시키며 장난을 친다.
 침대 위 겹에 질린 여자들의 비명 소리 끊이질 않는다.
 빠른 템포의 북소리와 웅얼거리는 주문 소리 함께 들려온다.
 한참동안 침대를 이동시키며 장난치던 저승사자들,
 침대를 무대 뒤편에 나란히 놓고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진숙과 유정, 완전히 지친 표정으로 쓰러질 듯 침대에서 내려온다.
 무대 중앙의 두 여자를 제외하고 모든 조명 꺼진다.

진 숙 벌써 몇 년째 같은 꿈. 그날 이후로 항상 같은 꿈.
 유 정 벌써 몇 년째 같은 꿈. 꿈을 기억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같은 꿈.

진숙과 유정, 나란히 무릎을 안고 웅크린 채 바닥에 앉는다.

진 숙 (겹에 질린) 대체 언제까지 이럴까?
 유 정 (겹에 질린)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럴까?

이때, 요란한 팽과리, 징, 북 등의 풍물 소리 들려온다.
 어두운 무대 가장자리에서부터 도깨비 분장을 한 사람들이 춤을 추며 다가온다.

유정을 가운데 두고 점점 거리를 좁혀 오며 등글게 서 춤추는 도깨비들.
 겁에 질린 두 여자, 도망치려 하지만 도깨비들에게 막혀 벗어날 수 없다.
 도깨비들, 심하게 장난을 치며 두 여자를 겁준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자 결국 포기하고 제자리로 온다.
 진숙과 유정, 무대 중앙에서 서로를 발견한다.
 도깨비들의 장난스러운 위협 점점 더 심해진다.
 진숙과 유정, 서로 손을 맞잡는다.
 두 여자 가까이 다가온 도깨비들, 갑자기 소매에서 흥기를 꺼내든다.
 낫, 칼, 도끼 등 무시무시한 흥기 쳐드는 도깨비들!
 진숙과 유정, 서로 꼭 끌어안으며 비명 지른다.

진 숙 (동시에) 까악!!
 유 정 (동시에) 까악!!

비명 소리와 함께 무대 급하게 암전.

3장 · 정신과 상담 ①

무대 뒤편에 유리 막 놓여있고,
 무대 중앙에 등받이 올라온 침대 두 개 놓여있다.
 조명 천천히 어두워지며 무대 오른쪽을 비춘다.
 진숙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두리번거리며 무대로 등장한다.
 이때, 진숙의 휴대폰이 울린다.
 진숙, 전화를 받는다.

진 숙 응, 애비냐? 그래, 그래. 출장은 잘 다녀왔구? 우리 별이랑 별이 에미도 잘 지내지? 응~ 나야 당연히 무탈하지. 지금? 어, 지금? (잠시 망설이다가)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 아니, 아니야~ 무슨 일은? 그저 너무 집에만 있어도 답답하니 나온 거지. 그래. 걱정 말거라. 난 항상 잘 있다.

진숙 쪽 조명 어두워지며 반대편 조명 밝아진다.
 유정이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전화통화를 하면서 등장한다.

유 정 말도 마! 내가 그 점쟁이 말만 믿고 거길 들어갔다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재수 없어 죽겠어. 웬 고집 센 늙은이 하나가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아니야, 생각하기도 싫어. 내가 경찰에 확 고소하려다가 참았다니까? (약한 척) 오빠도 알잖아. 나 은근 마음 여린 거. 그래서 그런지, 어제 꿈자리가 더 안 좋았어. 응. 여기? 어... 어... 어, 쇼핑 나왔어.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응, 오빠. 그럼 조금만 둘러보고 전화 할게. 응, 수고해요~ (애교 섞인) 따라해!

조명 다시 밝아지며 무대 전체를 비춘다.

유정, 약간 망설이다가 무대 중앙의 침대에 어정쩡하게 올라앉는다.
이윽고 목소리 들려온다.

여의사 목소리 어서 오세요.
남의사 목소리 편안하게 앉으세요.

진숙과 유정, 올라온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여의사목소리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 잘 생각하셨습니다.
남의사목소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질환을 남의 시선이나 자존심을
 의식해 큰 병으로 키우곤 하죠.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하신 선택입니다.
여의사목소리 (동시에) 저희 한마음 정신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의사목소리 (동시에) 저희 한마음 정신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숙과 유정, 약간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여의사목소리 자, 그럼 어디 한 번 시작해 볼까요?
남의사목소리 지금부터 저의 인도대로만 따라 주시면 됩니다.

무대, 약간 어두워지며 제각 제각 시계 초침 소리 작게 들려온다.

여의사목소리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남의사목소리 가장 최근에 공포를 느낌 점은 무엇이죠?

진숙과 유정, 눈을 감고 대답한다.

진 숙 악몽을 꿴어요. 30년 쯤 꾸는 꿈이죠.
유 정 끔찍한 악몽이죠.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진 숙 처음엔 그 날의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잊을 수는 없는 기억이죠. 어
 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지도 몰라요.
유 정 아마 사춘기 때였을 거예요. 처음 생리를 시작하고 통증 때문에 힘겹게 잠이 들
 었을 때였나... 그땐 그저 키가 크는 꿈 인줄만 알았어요.
진 숙 십년이 지나고, 이십년 이 지나고, 그리고 삼십년. 검은 머릿결이 백발로 성성해
 질 때까지 잊혀 지질 않아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어야
 할 까요.
유 정 여드름도 없어지고, 발육도 멈춘 지 오래죠. 아, 뭐, 키는 별로 크지 않았네요. 어
 릴 적엔 그저 나이를 먹으면 괜찮아 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능시험을 보던 날
 에도, 입사시험을 치르기 전 날에도 늘 이 꿈이에요. 악몽이죠.

진숙과 유정, 한기가 느껴지는 듯 가볍게 몸을 떠다.

여의사목소리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의 기억으로부터 점점 더 먼 시간의 기억
 으로 여행을 한 번 떠나 볼까요?
남의사목소리 부담 갖지 마세요. 두려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예전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선가 구슬픈 여자의 콧노래 들려온다.
진숙과 유정의 말은 담담하게 시작해서 점점 더 격양되어 간다.
마지막 순간에는 울부짖음 같은 절규가 된다.

- 진 숙 아들 녀석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도 졸업하기 전의 일이죠. 벌써 세 살이나 되었네요. 그때 생긴 하나밖에 없는 손주 별이가. 홀로 아들을 키워왔던 탓에 실망이 크기도 했지만, 아들 녀석도, 며늘아이도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진심으로 두 아이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죠. 그리고 아들 녀석이 내 품을 떠나던 날, 어김없이 지독한 악몽을 꿴어요.
- 유 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곳이에요. 태어나서 무당이나 점집은 처음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하필, 거기서 약혼자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나를 이리저리 훑어보면서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될 분은 항상 그래요. 내가 못마땅한 거죠. 시어머닌 병어리처럼 입 다물고 시키는대로만 고분고분 따라하는 그런 며느리를 원해요. 그날 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심하게 악몽을 꿴어요.
- 진 숙 사실 며느리는 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이도 그렇죠. 며느리가 처음 별이를 낳아 집으로 온 날, 처음으로 손주를 옆에 누이고 잠이 들던 날이었죠. 어찌나 행복했던지... 그런데, 그날 또 그 악몽을 꾸고 말았어요. 난 밤새도록 비명을 질렀고, 어린 손주는 내 비명 소리에 놀라 울다가 경기를 했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나에게 절대 제 자식을 맡기지 않아요.
- 유 정 처음 결혼 허락을 받고 나서 약혼자의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좋았죠. 모든 것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김없이 그 지긋지긋한 악몽이 날 찾아왔어요. 유난히 심했죠. 난 온몸이 푹 젖은 채로 비명을 지르며 약혼자의 방을 찾아갔어요. 그이는 날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님께서 날 보셨죠. 뭔가 석연치 않은 그 눈빛... 마치 날 정신병자나 부정한 여자 보듯 하는 그 눈 빛... 시어머닌 당신 아들이 다른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 한 거죠. 그 여행에서 돌아와 시어머닌 갑자기 결혼을 연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 진 숙 (버럭) 제기랄! 난 그 악몽을 증오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일을 망치지! 대체 내가 뭐?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 유 정 빌어먹을 악몽 같으니! 혐오스러워, 너무너무 혐오스러워! 대체 내 기억 속엔 어떤 유전자가 박혀 있길래 생전 보도 듣고 못한 그 끔찍한 광경들을 매일 밤 겪어야 하는 건지! 대체 왜!

진숙와 유정, 몹시 흥분한 상태.
의사들이 진숙과 유정을 진정시킨다.

- 여의사목소리 그만, 그만! 지금 너무 흥분하셨군요.
남의사목소리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일단 한 템포 침착하시고... 숨을 고르세요...

진숙과 유정, 시키는 대로 숨을 고른다.

- 여의사목소리 자, 좋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를 믿으세요.
남의사목소리 이제는 좀 더 과거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부끄

러웠던 일... 한 번 떠올려 봅시다.

유정, 다시 평온한 상태가 되어 눈을 감고 대답을 한다.

- 진 속 아들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성적이 좋아 대표로 시상대에 올랐어요. 정말 근사했죠.
- 유 정 사랑하는 그이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죠. 그런 이벤트는 잘 못하는 남자인데... 감동했어요.
- 진 속 딱 한 번, 죽은 그이를 대신할 만한 사랑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춘기라 예민했던 아들 녀석을 생각해 접고 말았죠. 그래도, 살면서 그렇게 가슴 떨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 유 정 고등학교 졸업식 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지긋지긋한 입시지옥도 이제는 안녕이다! 친한 친구들과 밀가루를 터뜨리며 온 교정을 뛰어다녔죠.
- 진 속 우리 아들... 아들이 태어나던 날... 비록 사랑하는 그이는 옆에 없었지만, 난 내가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를 찾았죠.
- 유 정 처음 세상에 태어나던 날... 난 어렴풋이 생각나요. 컷가를 때리던 그 시끄러운 소리들, 감은 눈 위로 쏟아지던 눈부신 햇살...
- 진 속 그리고, 그날.
- 유 정 내가 태어나기 전, 그 날. 그 오래전의 날.
- 진 속 날이 좋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죠.
- 유 정 조금 쌀쌀했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햇살은 부드러웠어요.
- 진 속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역에는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 유 정 소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 진 속 그날은 그랬어요.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워 가슴이 시린 날이었죠.
- 유 정 그날은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에 눈물이 나는 그런 날이었죠.

진속과 유정, 동시에.

- 진 속 (동시에) 그날은, 그랬어요.
- 유 정 (동시에) 그날은, 그랬어요.

암전.

4장 · <어제로>

무대.

조명, 천천히 약간 밝아진다.

맨발에 검은 누더기를 걸친 영혼들이 하나씩 걸어 들어오며 읊조린다.

얼굴에는 눈을 가리는 괴상한 가면을 쓰고 있다.

영혼1 당신은 보았나? 그 날의 참상을.

영혼2 당신은 들었나? 그 날의 울부짖음을.

영혼3 당신은 맡았나? 그 날의 피 냄새를.

영혼4 당신은 만졌나? 폭력과 배신의 옷자락을.

영혼5 당신은 느꼈나? 당신의 죽음을.

영혼들이 무대 위에 각자 자리를 잡고 선다.

별안간 천둥소리, 벼락소리, 싸이렌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온다.

빨간 조명이 무대 위를 어지럽게 휘젓는다.

공포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격렬하게 춤을 춘다.

춤을 추며 다른 영혼들의 몸을 타고 올라가 한 명씩 절규한다.

영혼1 나는 보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총에 맞고 칼에 찔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꺼져가던 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영혼2 나는 들었다! 절규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구원 없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의 목구멍은 갈갈이 찢기었다!

영혼3 나는 맡았다! 도시 가득하던 비릿한 피 냄새를! 온 사방이 피냄새에 잠겨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영혼4 나는 만졌다! 폭력의 그 더러운 옷자락을! 살기 위해 죄 없는 젊은 학생을 찢르
고, 살기 위해 두려움에 떠는 젊은 군인을 썩다!

영혼5 나는 느꼈다! 나의 죽음을! 죽음의 선дук한 칼날이 내 목을 스치는 순간, 내 몸은,
이미 수십 개의 구멍들로 너털너털해졌다!

영혼들의 춤이 더욱 격렬해진다.

알 수없는 울부짖음과 웃음소리, 기합을 번갈아 내며 난장을 만든다.

이윽고, 어디선가 총성이 들려온다.

한 발의 날카로운 총성이 들려올 때마다 영혼이 하나씩 쓰러진다.

영혼들이 모두 쓰러지고 난 후, 암전.

5장 · 귀향

역임을 알리는 역내 안내방송 소리 들린다.
무대 오른편을 중심으로 한 쪽에만 조명 들어와 있다.
역으로 들어서서 짧은 시절의 진숙(30대 초반)과 남편 강우의 모습 보인다.
진숙, 배가 만삭으로 불러있다.
진숙, 연신 땀을 흘리고 강우가 진숙을 부축한다.

강 우 5월인데 아직도 좀 쌀쌀하네. 당신, 괜찮아?
진 숙 견딜 만해요. 걱정 말아요. (웃음) 이 정도로 어떻게 안 되니까.
강 우 얼마 만에 와 보는 고향인지 모르겠네!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서울로 상경했으니까... 벌써 이십 년이네...
진 숙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매정한 자식인지 알겠죠? 매번 아버님 어머님께서 올라 오셨지, 당신이 내려온 적은 없었잖아.
강 우 그렇게 말이야... 그런데도 내치지 않고... 이렇게 받아주네.
진 숙 다행이지 뭐예요. 친정 부모님도 안계시고, 혼자 아이 낳아 누구한테 몸을 의탁 하나 걱정했는데... 아버님 어머님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을까 싶어.
강 우 고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보시면서 지내시게 될 텐데, 그런 호사스러운 고생이 어디 있어?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도 말고, 마음 편히 건강한 아이 낳을 생각이나 해!
진 숙 이러니까, 아들자식 낳아봤자 며느리 준단 소리 나오는 거라니까! 나도 당신 닮아 공처가 애처가인 아들 낳으면 어떻하지?
강 우 뭐? (웃음)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건강하게 많이 낳기만 해!

진숙과 강우, 행복하게 소리 내어 웃으면 조명 꺼진다.

반대편 무대에 조명 들어오면, 시장이다.
행상 할머니 하나가 앞에 야채꾸러미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잡고 있다.

할머니 잡췌 봐! 잡췌 봐! 그냥 가지들 말고, 한 꾸러미씩 들고 가 잡췌 보라니까잉! 고기도 좋지만, 요런 채소를 먹어야 진짜 건강해지제~ 불끈불끈 힘 솟는게, 밤에 잠자리까정 달라진다니께~~! 어이, 거기 새택! 거기 서봐잉? 내가 싱싱한 놈으로 한 봉다리 잘 담아준다니께!

지나가던 행상 총각 하나가 웃으며 말을 건다.

총 각 이봐요, 할마씨! 거 누가 들으면 공짜로 주는 지 알겠어라~! 그라고 홍보를 해서 돼갔어요? 얼마에 얼마, 싸다 싸! 요런 식으로 공정하게 홍보를 해야 사람들도

오고 그라는 것이제. 요새는 그런 부풀리기식 홍보는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못한다니까요~!

할머니 저 썩을 놈이 시방 뭐라고 나부랄나부랄거려? 잡놈아, 니 갈 길이나 잘 가라잉! 나가 여기서만 30년을 행상한 년이여! 아무렴, 피라미 같은 니놈만 못할까봐서 그라냐?

총 각 참나, 그 입만 열면 튀어 나오는 년놈 소리부터 고치랑께요! 무슨 할마씨가 입만 열면 무슨 년, 무슨 놈! 아, 무서워서라도 못오겠어라!

할머니 그런데, 이놈이 오늘 매가 고픈가~ 왜 안 꺼지고 지랄이여?

, 일어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공격태세를 취한다.

총 각 어쭈, 어쭈! 이 할마씨가 아무렴 내가 몸이 부실해도 다 꼬부라진 할마씨하나 못 당해낼까봐서 그라요?

할머니 길고 짧은 것은 대 봐야 아는 것이제!

할머니와 총각, 서로 공격태세 취하고 빙빙 돈다.

마치 <장군의 아들>에나 나올 듯한 분위기다.

할머니, 기합과 함께 생각지도 못했던 날렵한 고단수 발차기를 선보인다.

총각, 껌싸게 피하면서 마치 곡예 같은 방어를 보여준다.

이때, 미진과 명선이 할머니를 부르며 무대 위에 등장한다.

미진은 현대의 유행이다.

미 진 할머니! 할머니!

싸움을 진행 중이던 할머니, 미진의 부름에 순식간에 인자한 할머니로 돌아온다.

할머니 잉! 우리 서울 유치원 선생님 오셨는가?

명 선 할머니, 지도 왔어라~

할머니 으잉, 으잉! 잘 왔다! 뭐 좀 줄까?

미 진 내일 유치원 애들하고 소풍 가기로 했거든요. 김밥 좀 싸려고 하는데 김밥거리 좀 주세요. 김밥거리 있죠?

할머니 (간드러지는 웃음) 그럼, 그럼! 채소 파는 집에 김밥거리 없을라고? (채소 봉지에 담으며) 그나저나 우리 서울서 온 유치원 선생님은 피부도 뽀~얇고, 머리카락도 반들반들 윤기가 나는 게 참말로 내 소싯적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좋구만~!

미진, 수줍은 웃음.

할머니 그래, 광주상회 김씨 할매랑 어떻게 된다고라?

미 진 큰어머니세요.

할머니 그렇고만! 어쩐지, 닳은 데는 별루 없어야! 그 예편네 쌍관은 메주 두드린 것 같아 넓적한데, 서울 선생님은 이렇게 쪼그맣구 말이제!

미진과 할머니가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

행상 총각과 명선은 서로 찌르고 막으며 애정행각 중.

명 선 아따, 이 아자씨가 오늘 왜 이런데잉? 발정난 개처럼!
 총 각 야야, 말 좀 곱게 해라! 고런 게 다~ 나중에 시집을 때 다 흠되는거 모르나잉?
 명 선 그쪽한테 흠 잡힐 일 없으니께, 걱정일랑 마쇼잉!
 총 각 (명선의 옆구리 푹 찌르며) 참말로, 니는 이렇게 툭툭 튕겨주는게 매력이제! 아
 쉽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니께 이만 작별하자고!
 명 선 (코웃음 치는) 핏!
 총 각 아이구, 아주 이뻐 죽겠구마잉! 느는 내 가슴에 불을 지르려고 태어난 것이제!
 참말로 그렇게!

미진 쪽 비추는 조명 꺼지고, 반대편 무대 조명 들어온다.

은은한 녹색 조명 아래 시냇물 소리와 아이들 노랫소리 들려온다.
진숙과 강우가 정답게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진 숙 변한 게 없네요.
 강 우 그런가?
 진 숙 당신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워낙 오랜만에 왔으니.
 강 우 야단치는 것 같군.
 진 숙 그럴리가요.

이때, 저쪽에서 행상총각이 반갑게 강우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온다.

총 각 강우야! 강우야, 임마!
 강 우 (놀라운) 너, 너...
 총 각 이게 얼마만... (손가락 꼽아보며) 가만있어 보드라고... 야야, 자그마치 이십년!
 강 우 그렇게 됐다.
 총 각 이 호랭이 물어갈 놈아, 이렇게 무정하기도 쉽지 않제! 지 나고 자란 고향 이십
 년씩이나 등지고 사는 게 더 어렵제!
 강 우 미안하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총 각 이야~ 완전 서울내기네잉! 누가 광주 사람이라 하겠어? (진숙 발견하고) 웬마!
 웬마, 우리 고운 제수씨! 지난 명절 때 뵈고 또 뵈네요잉~
 진 숙 (인사하며) 안녕하셨어요?
 총 각 카~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그랬나, 그 저, 저... 암튼! 이 놈 강우가 코짤짤
 흘리던 시절부터 남달리 번듯한 외모에 거 뭐냐, 암튼 우리랑은 다른 뭔가가 있
 었어라.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얼굴 좀 예쁘장하다싶으면, 그냥 생각도 안 하
 고 바로 공격 들어가 주시고,
 강 우 (막으며) 야! 야!
 진 숙 (웃음)
 총 각 아차, 내가 또 평화로운 가정 하나 갈라놓을 뻔 했지라? (웃음) 너무 반가워서
 그랴요. 오랜만에 만나니. 암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뽀인트는, 그렇게 잘난 동
 네 자랑 강우 놈이 거기에 딱 어울리는 고운 서울 아가씨를 만나서, 제수씨, 제
 수씨 말여요! 어쨌거나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딱, 눈물이 앞을 가

리면서 얼른 장가들어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의지가 마구 마구 솟아오른다! 이런 말씀이지라~!

 , 강우, 총각 모두 행복한 웃음 지으며 무대 어두워진다.
세 사람,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아무도 없는 무대, 어디선가 헬리콥터 소리 들려온다.
멀미가 심한 듯 비틀거리는 인호, 구역질을 하며 무대에 등장.
뒤따라 고참 한 명이 따라 온다.

고 참 인호야, 인마! 너 괜찮냐?
인 호 (힘겹게 각 잡으며) 괜찮습니다!
고 참 이 새끼는, 멀쩡하던 놈이 왜 갑자기 멀미야? 너 이려고 자리 비운 거 걸리면 상
 공에서 바로 땅바닥으로 투하다. 인간 낙하산 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정신 차렷!
인 호 원래는 멀미 같은 거 안 하는데... (구역질) 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계속해서 구역질 하는 인호.
고참, 인호의 등을 두드려준다.
무대 암전.

6장 · 1980년 5월 18일, 소풍

광주시내.
시위에 참여한 듯 머리에 띠를 두른 청년 하나가 무대를 가로질러 뛰어간다.

청 년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청년의 뒤를 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무대를 가로질러 뛰어간다.

계엄군 거기 서! 이 새끼야!

다시 고요해 진 무대.
진숙과 강우가 손을 잡고 걷고 있다.

진 숙 당신, 못 들었어요?
강 우 못 들었는데? (진숙의 배에 귀를 대며) 왜, 또 우리 애기가 발로 차?
진 숙 아니, 말고.

강 우 그럼 무슨 소리?

, 다시 들려오는 구호소리.

소 리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뒤이어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비명 소리가 영켜 들려온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강우.

강 우 잠깐만! 당신,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

진 숙 여보, 나도 같이 가요!

강 우 (웃음 지어 안심시키며) 잠깐이면 돼. 무슨 일인지만 보고,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장 보는 거 다음으로 미루고 그냥 돌아가요.

진 숙 (아쉬운) 아버님 어머님 맛있는 진지 해 드리고 싶었는데...

강 우 그럼, 저쪽, 저쪽에 잠시만 있어요!

강우, 진숙의 손을 잡고 급히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몇 발의 총성과 비명 들려온다.
미진, 명선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무대 위로 등장한다.
미진과 명선의 옷, 피로 물들어 있다.

미 진 명선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뛰어!

명선, 뒀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고 만다.

미 진 명선아!

명 선 (뒀 나간) 미진아, 내가 지금... 뭘 본 거제? 내가 본 게 뭐래?

미 진 가서 얘기해. 일단 들어가자.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명 선 우리 애들... 우리애기들은 으뜨케 됐나? 우리애기들... (울음 터뜨리는) 소풍간다고 좋아하던 우리 애들은 다 워디 갔다? 아까 공포탄 소리에 놀라서 우는 거 니도 봤제잉? 사람들 두들겨 패는 거 보면서 경기하는 거 봤제잉? 가야 디야, 찾으러 가야 디야! 길 잃고 울고 있을 거라, 가야 디야!

미진, 그런 명선을 말없이 본다.

미 진 너무 걱정하지 마. 같이 계시던 어른들께서 하나씩 안고 뛰어나는 거 봤지? 응? 모두 무사할 거야. 얼른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얼른 정신 차려!

명 선 (미진의 손잡고 잠시 보며) 근데 미진아...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잉... 아까 부딪힌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어지럽디야...

미진, 명선의 머리 살피면 명선의 머리에서 피 쏟아진다.
명선, 폭 쓰러지며 증얼거린다.

명 선 아까 부딪혔는데... 우리애기들 막다가 부딪혔지라...
미 진 (명선 안고) 명선아! 명선아! 명선아! (울음)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사람! 좀 도와주세요!

다시 비명소리와 함성 소리 들려온다.
미진, 부랴부랴 일어나 명선을 끌고 무대 밖으로 퇴장.
강우의 친구인 총각, 계엄군에게 두들겨 맞으며 끌려 들어온다.
총각, 이미 온 몸이 피투성이다.

계엄군 이 새끼, 어디서 이죽거리? 죽고 싶어서!
총 각 왜, 다 뻘냐? 다 뻘냐, 이 빌어먹을 놈들아! 왜, 군복 바지 속에서 고것이 꿈틀꿈
틀 하는 거 참느라 힘들었겠다고 말하니까 약 오르냐잉? 나가 너무 정곡을 콕
찔러서 열받냐잉?
계엄군 이 새끼,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계엄군들, 돌아가며 총각을 구타한다.
총각, 한동안 맞고 비틀거리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계엄군들, 쓰러진 총각을 질질 끌고 무대 밖으로 퇴장.
텅 빈 무대.
어디선가 <애국가>를 열창하는 목소리 들려온다.
1절이 끝나갈 무렵, 무대 조명도 천천히 꺼지다가 완전히 암전된다.
암전된 무대, 진숙의 목소리만 들려온다.

진숙목소리 여보! 여보! 강우씨! 강우씨, 어디 있어요?

7장 · 탈출

어두컴컴한 무대.
무대 중앙에 진숙이 잔뜩 겁에 질린 모습으로 쪼그려 앉아 있다.

진 숙 (벌벌 떨며) 여보, 강우씨... 강우씨, 어디 있어요...?

무대 한편에서 녀이 나간 미진, 터덜터덜 걸어 들어온다.
미진, 진숙 옆에 풀썩 주저앉는다.

진 숙 저기, 아가씨! 혹시, 키는 훗칠하고 피부는 좀 뽀얀 편에, 마른 체격인데! 본 적
있나요?
미 진 (기운 없는) 훗칠한 키?
진 숙 예! 한 175cm 정도...
미 진 피부가 뽀양다구요?
진 숙 네, 잡티 하나 없이 뽀얀 편이에요!
미 진 마른 체격이구요?
진 숙 뒤에서 보면 허리가 늘씬한 것이, 매끈한 몸매예요! 똥배도 없고요!
미 진 (한숨) 나가보세요. 길바닥에 널린 남자들 중에 태반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진 숙 (충격) 네?

, 바닥에 쿵 하고 주저앉고 만다.

진 숙 대체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미 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이때, 공포탄 소리 연달아 들려온다.
진숙과 미진, 비명을 지르며 서로 끌어안는다.
실성한 듯한 인호, 미친놈처럼 웃으며 총구를 겨누고 무대 위로 등장한다.**

인 호 덤벼! 또 덤벼! 죽창이든 곡괭이든 뭐든 들고 덤벼 보라고! 갈겨줄 테니까!

인호, 진숙과 미진을 발견하고 그녀들에게 총구를 겨눈다.

인 호 뭐야!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도 날 비웃고 싶어? 날 놀리고 싶어? 하고 싶으면
어디 한 번 해 봐, (장전하는 소리) 해 봐!
진 숙 (겁에 질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아무 것도, 아무 유감도,
아무 말도... 그런 거 없어요... 안 했어요...
인 호 거짓말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런데 미진, 고개도 못 들고 있다가 인호의 모습 흘깃 본 후 일어난다.
미진, 천천히 인호에게 다가가며 손을 내민다.**

미 진 인호씨... 인호씨 맞지?

**인호, 옛 여자 친구인 미진을 알아보고 미동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인호, 갑자기 미진에게 총구를 들이댄다.**

인 호 가까이 오지 마! 너도 똑같은 년이야! 나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진숙, 미진과 인호가 대치하고 있는 틈을 타 도망간다.
무대 밖으로 사라지는 진숙.**

미 진 군대에 갔다며...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

인 호 너 때문이야! 니가 그때 그 철중이 놈이랑 만나지만 않았어도, 난 그렇게 급하게 군대 입대할 일도 없었고! 여기 이 꼴로 서 있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미 진 오해야, 인호씨!

인 호 닥쳐! 오해는 뭐가 오해야!

미 진 철중씨가 날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뿐이야. 그게 다야! 인호씨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내가 얼마나 인호씨 찾아 헤맸는지 알아?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울먹울먹) 나, 인호씨 없는 서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 내가 오죽하면 이 광주까지 내려왔겠어!

, 천천히 총구를 내린다.

인 호 그랬...어? 정말...루?

미 진 그래, 이 바보야!

인호, 총을 푹 떨어뜨린다.

미진, 인호에게 천천히 다가가 인호를 안는다.

인호, 미진의 품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린다.

인 호 (울음 섞인 절규) 미쳤어. 다들 미쳤어!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어! 미진이 너도 봤지? 미쳐 날뛰는 사람들 봤지? 미진아, 나, 나 무서워!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다구!

미진, 인호를 품에 안고 위로하며 다독인다.

미 진 알아. 다 알아. 세상이 미쳤어. 세상이 잠시 미쳤어. 조금만 있으면 다 괜찮아 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 응?

인 호 내 또래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그 놈이 깨진 병을 들고 덤벼대는 통에... 내가 그놈 머리를 뺐어. 쓰러질 때까지, 미친 듯이 뺐어. 병원에 빨리 가야 할 텐데... 안 그러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흘려서...

미진, 인호를 끌어안는다.

인호, 거칠게 숨 몰아쉬다가 미진과 격렬하게 키스한다.

미진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미진의 상의를 벗기려 하는 인호.

미진 역시 인호의 군모를 벗긴다.

이때, 무대 위로 등장 해 이 광경 본 진숙과 강우.

강우, 인호가 떨어뜨린 총 개머리판으로 인호를 가격한다.

인호, 비명 지르며 쓰러진다.

미진 역시 비명 지른다.

진 숙 아, 아가씨! 얼른 일어나요! 아가씨도 얼른 도망가요!

강 우 지금 밖이 한산해요. 빨리 도망가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미진, 진숙과 강우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인호를 흔들며 깨운다.

미진 인호씨! 인호씨! 인호씨, 정신차려!

강우, 그런 미진을 의아하게 본다.

강우 아가씨... 아는 사람이에요?

미진 (울음 섞인) 애인이에요...

다시금 들려오는 비명소리, 군화소리, 합성소리.

강우, 진숙의 손을 잡고 도망가려다가 잠시 멈춘다.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인호 들쳐 업는 강우.

강우 가요! 어서! 다들 일어나요!

도망가는 네 남녀.

어디선가 등장한 검은 옷차림의 도깨비들이 이들의 앞을 막는다.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네 남녀.

하지만 가는 곳마다 색색의 옷을 입은 도깨비들이 장난을 치며 앞을 막는다.

무대 뒤편, 하얀 삼베 한복 걸쳐 입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무대로 등장한다.

도깨비들의 위협 때문에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네 남녀를 보는 노인.

노인, 뒷짐 지고 허허 웃으며 그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색한다.

노인 이놈들아! 이놈들아! 당장 그만두지 못혀? 죽고 잡냐, 니들? 장난도 적당해야 장난이제! 어디 귀한 우리 딸자식들을 가지고 장난을 쳐? (위엄 있는 호통) 예끼! 썩 물러가라 이놈들아!

노인의 호통소리 들으며 갑자기 약간 기세 누그러지는 도깨비들.

노인 그래도 저놈들이! (진숙과 미진을 부르며) 흥아, 윤아! 어서 일루 와라! 일루 와! 이 애비가 구해 줄 테니까, 어서 일루 와!

진숙과 미진, 인호를 업은 강우, 노인을 발견한다.

노인 그렇지! 어서 와야! 얼른 안 오든 저놈들이 또 장난질할테니까!

진숙, 미진, 강우, 노인의 손짓을 보고 노인에게 달려간다.

도깨비들, 노인 곁에는 얼씬도 못하고 요상한 춤추며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노인 앞에 기진맥진해 쓰러지는 진숙, 미진, 강우와 인호.

노인 힘드냐? 많이 힘들제? 서울서 여가 워디라고. 수고했다. 오니라 수고했어.

노인, 꺾꺾 웃으며 진숙과 미진을 보듬어 안는다.

무대 암전.

8장 · 가족

중앙에 밥상 놓여있다.

밥상을 중심으로 나란히 앉아 있는 진숙, 강우, 미진, 인호.

노인과 노파, 밥상에 계속 음식을 가져다 나른다.

서로 눈치만 보며 앉아 있는 진숙, 강우, 미진, 인호.

노인과 노파, 밥상 양 끝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노인, 가만히 앉아 있는 진숙에게 손가락을 쥐어 준다.

노 인 홍아, 마이 목그라이. 이렇게 배가 남산만한다 월매나 배가 고프졌어.

노인, 인자한 눈길로 미진을 본다.

노 인 윤아. 니도 마이 목그라이. 니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다 같이 밥먹는게 을마만이
나. 남자. 남자도 뿌듯허제?

노 파 두말하면 잔소리요.

노 인 가만있자... 홍이 남편 자네는 성이 으뜨케 되는가?

강 우 이... 강우입니다.

노 인 으이, 그라든 이서방이로구만! 이서방, 많이 듣세!

강 우 (난처한) 예, 예...

노 인 우리 둘째사우는 무슨 서방인감?

인 호 강... 인호...

노 인 으이, 강서방! 아따, 부르기도 좋다. 이서방, 강서방! 우리 둘째 사우도 많이 듣
세! 아까 보니 허기져서 잘 일어나들도 못하드만!

진숙, 강우, 미진, 인호, 여전히 머뭇거린다.

노파, 잠자코 밥술을 뜨며 나지막하게 말한다.

노 파 그저 따신 밥이나 배불리 먹고 쉬다 가쇼.

사람들,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

이때, 고시생 조카가 호들갑스럽게 무대에 등장한다.

조 카 외삼촌! 외숙모! 난리가 났어라! 세상에 미친 난리가 났어라!

조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며 방정맞게 나타난다.

조 카 전두환이 보낸 계엄군이 도시를 장악했어라! 이젠 가리지도 않고 총까지 쏘고!

시민들도 눈깔 뒤집혀 맞서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흔들어 감서 (국기에 대한 맹세 자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계엄군 기합 소리 흉내 내며) 아으앗! 아으앗! 나가, 와전 시껌해가지고서는 날렵하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죽을 고생을 다해서 요렇게 무사히 돌아왔어라.

, 조카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다.

조카, 밥상에 둘러앉은 낯선 사람들을 보고 놀란다.

조 카 엄마야! 이게 다들 누구시단가? 조기 저 여자분은 배가 남산만한 것이... 산부? 고 옆에는 꼭 샌님같으시고, 오우, 아리따운 아가씨도 같이? 그리고 고 옆에는... (인호 자세히 살피는) 워마! 계, 계엄군! 계엄군!

조카, 허둥대며 상 밑으로 슬라이딩해 숨는다.

여전히 미동 없이 밥 먹는 사람들.

노인, 반찬을 집으며 한 마디 한다.

노 인 강서방이여.

노 파 니두 얼른 이리 앉그라이. 배 고프제?

조카, 여전히 인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상에 앉는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발작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노 인 이놈! 이노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홍이랑 윤이가 여기 왔었다잉! 누가 무슨 꿑꿑이로 다시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다신 우리 홍이 윤이 못 데려가제! 암! 다신 못 데려가제! 내 얼마만에 찾은 딸들인디!

일동 놀라 노인을 주목.

오로지 노파만이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먹는다.

노인, 벌떡 일어나 샷대질을 하며 호통 친다.

노 인 이놈! 이놈이 그래도!

노인, 무언가를 쫓듯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조 카 (쭈뼌한) 또 보셨나부네잉. 그 녀의 환영.

노 파 신경들 쓰지 말고 드소. 저러다 마니께.

하지만 진숙, 강우, 미진, 인호, 여전히 눈치 본다.

노 파 실성이오. 그라니 신경 쓰지 말고 드소.

조 카 두 따님 잃고 나서부터 저러오. 하시는 말씀 보니, 요기 여자분들을 죽은 두 따님인 줄 아시나 보요.

강 우 실례가 될 줄 알지만... 무슨 연유로...?

노 파 사고로 죽었소. 한 날 한시에.

조 카 뱃사고였서라. 시신도 못 찾고. 그라니께 저리 믿질 앉으시지. 아직도 매일같이

두 따님 방을 치고 닫고, 그렇게 문 밖에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시드마이...

미진, 숙연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숙인다.
미진,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미진 밖으로 나가시면 안돼요! 위험해요! 제가 가 볼게요!

미진, 밖으로 나가려 하자 노파가 만류한다.

노파 앉으소.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설마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 해할까? 그리 걱정되면 내가 나가 보고...

노파,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조카, 노파를 부축하며 함께 일어난다.

조카 지가 모시지라우. 밖이 험한다.

노파와 조카, 퇴장한다.
진숙, **강우**, **미진**, **인호**, 썰렁한 침묵이 돈다.

미진 이젠 어찌죠?

강우 어찌긴요. 돌아가야지.

인호 돌아가? 지금 이 판국에 어딜 나가요? 밤이고 낮이고 함부로 나갔다가 머리통에 총알 박히기 십상이라구!

진숙, 충격 받은 표정.
강우, 달랜다.

강우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있을 수많은 없어요. 집으로 가야지.

인호 가? 가고 싶다고? 좋으실 대로. 하지만 난 안 가! 세상이 제정신 차릴 때까지 난 안 가!

강우 (비웃는 듯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겠지.

인호 뭐야?

강우 똑똑한 놈들만 모아 놓은 게 계엄군인줄 알았지, 저렇게 심약한 인사가 거기 끼어 있을 줄 누가 알았나? 어차피 전시랑 맞먹는 비상령이 내린 때, 무단으로 자리 이탈했으니 엄연한 탈영 아닌가?

인호 (벌떡 일어나는) 뭐야?

강우 왜! 또 무력으로 진압이라도 하실려고? (덩달아 일어나 맞서는) 한 번 해 봐! 해 보라고! 니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무고한 시민들이 벌써 얼마나 죽어 나갔는지 아냐구! 국제사회가 분노할 일이야! 심판 받을 짓이라고!

인호 닥쳐! 나라고 좋아 그랬는줄 아나? 우리라고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

강우 뻔뻔한 핑계 집어 치우시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내 친구 놈들도 니들 못매질에 피 토하고 목숨을 잃었다. 알긴 아나?

인호, 대답하지 못한다.

강 우 왜! 너도 그 새끼들 중 하나였나 보지? (진숙에게) 여보, 일어나요! 돌아갑시다!
 진 숙 여보...
 미 진 잠깐만요! 그렇게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밖은 아직도 위험해요. 직접 보셨
 잦아요! 게다가... (진숙의 배보며) 저 몸으로 급하게 움직이는 건 위험해요. 그
 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강 우 상황? 조금만 더 지켜봐? 이봐 아가씨! 저 새끼는 계엄군이야. 언제 어디서 저
 새끼 동료들이 무장한 채 우리한테 총구를 겨눌지 모른다고! 여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있나? 그렇게 여기 머물고 싶으면, 안전하게 저 녀석부터 없애버리든가!
 미 진 이보세요! 당신, 정말!
 인 호 그래! 좋아! 그렇담 사라져 주지! 안 그래도 아까 당신한테 얻어맞았을 때 그냥
 세상 하직했으면 했다가!
 미 진 인호씨! 왜 그래! 이러지 마!

 , 품속에서 작은 소총을 꺼낸다.
 일동, 놀라서 멈칫한다.
 인호, 입에 총구를 문다.
 이때, 들려오는 노인의 목소리.

노 인 홍아! 윤아! 이서방! 강서방! 밥은 다 먹었는가? 밥 다 먹었으면 내랑 바둑 한
 판 두제?

강우, 짹짜게 인호가 입에 문 총구를 억지로 빼낸다.
 노파와 조카가 양쪽에서 노인을 부축한 채 등장한다.

노 인 참, 님자! 내 생일은 언제 해줄란가?
 조 카 외삼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라~ 요번에 또 생일 하든 벌써 금년에만 열세
 번째여요!
 노 인 늙었다고 괘세하남? (어린이처럼 조르며) 내 생일 언제 해줄란가?
 노 파 내일 해 드리지요. 하룻밤만 참으소.
 노 인 (일동을 향해) 다들, 자구 갈 거제? 내일 생일상 같이 먹고 갈 거제?

일동, 말이 없다.

노 파 밖에는 나가지도 못했소. 어차피 오늘 돌아가긴 틀렸소. 영감 말대로, 하루밤 자
 고 가소.

일동, 여전히 말이 없다.

노 파 하루하루가 다른 양반이오. 이러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생전에 그렇게 끔찍이
 도 아끼던 두 딸들이랑 같이 생일 해 먹는 호사나 줌 하게 해 주소.

일동, 여전히 말이 없다.
 무대 암전.

9장 · 생일

밝은 무대.

무대 중앙에 놓인 상 위에 생일 상 차리는 노파, 진숙, 미진.
음식들을 하나씩 상 위에 차리는 행동 반복한다.
진숙, 약간 힘겨워 보이지만 이마의 땀 닦으며 부지런히 일한다.
노파, 그런 진숙을 흐뭇하게 본다.
미진, 진숙을 만류한다.

미진 언넌, 그만 쉬세요. 힘들어 보여요. 저희 둘로도 충분해요.
진숙 (웃음) 괜찮아요. 이 정도도 못 움직이나 뭐. 우리 그이가 한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말은 저렇게 냉정하게 해도, 여린 사람이예요. 아마 자기도 놀라고 충격 받아 그럴 거예요.
미진 (웃음) 알아요. 그 상황에선 누구나...

노파, 잠시 서서 진숙이 일하는 모습을 보다가 진숙의 배를 쓸어본다.

노파 딸이누, 아들이누? 오야, 아들인 것 같소.
진숙 (신기한) 어떻게 아세요?
노파 딸래미들은 이렇게 가슴 위까지 치받으며 놀거든. 아들들은 그냥 배에서만 놀고. 가슴 아래가 잠잠 한 걸 보니 아들이오.
진숙 아... 그렇구나.
노파 우리 흥이 윤이 살아있었음 꼭 새떡이랑 아가씨 나이요.

속연해지는 진숙과 미진.

노파 정신 나간 영감이 그렇게 제 딸들 살아 돌아왔다며 두 사람 못 가게 잡을 때, 나라고 왜 엄한 짓인 줄 몰랐겠소. 하지만 그제 나도 내 딸들 살아 돌아 온 것 같아서, 우리 흥이 윤이 만난 것 같아 고집을 부렸소.

노파, 눈시울이 젖어든다.
진숙과 미진, 따뜻하게 노파의 손을 잡는다.
이때, 조카 등장한다.

조카 웬때?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제? 아이고, 눈 여겨 안 봤으면 우리 흥이 윤이 살아 돌아 온 줄 알았겠구마! 참말로 보기 좋은 과정이어라~

노파, 조카의 능글거림이 밋지 않다.

노 파 영감은 어찌고 있누?
 조 카 아, 평생 못 만날 뻔 했던 사우를 둘씩이나 한꺼번에 만났는데 그 시정 오죽 할
 라고! 한 집씩 내주거니 저주거니 함서 바둑 두고 있소. (미진 보며) 아, 그쪽
 둘째 사우 말이요? 처음엔 어리벌벌 한 것 같드니만, 아주 손끝이 매우요?

, 웃는다.

조 카 참, 속모! 내 잠시만 다녀올께라.
 노 파 난리통에 가긴 어딜?
 조 카 이렇게 좋은 날, 약주가 빠져서 되겠어라? 우리 외삼촌 올 해 들어 열 시번째 맞
 는 생신이신제, 그라모 섭하제! 내 쏘살같이 다녀오겠어라.
 노 파 위험해. 그냥 있으소.
 조 카 쏘살같이 다녀온다 안 혀요?

조카, 말릴 새도 없이 능글능글 웃으며 퇴장한다.

노파, 조카가 나간 곳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미 진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좀 잠잠한 것 같으니까요.
 진 속 그러게요. 우리 그이가 어젯밤에 그러는데, 계엄군이 곧 철수할 거라는 말도 있
 고... 사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봐요.
 노 파 (한숨) 그래야지...

이때, 노인과 강우, 인호가 함께 등장한다.

강우와 인호, 활짝 웃는 얼굴로 노인을 정성껏 부축하고 있다.

노 파 엄살은... 아직도 기력 칠칠하니 잘 돌아다니시는 양반이... 어찌 그리 못 움직이
 는 사람마냥 부축을 받고 있소? 어린애 마냥?
 노 인 남자가 질투를 하는 것이제? 나랑 사우들만 친하다고.

노인, 상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 주변에 각각 진숙과 강우, 미진과 인호가 앉고.

상 끝, 인호 옆자리쯤 노파가 앉는다.

노인, 인자한 얼굴로 말을 꺼낸다.

노 인 우리, 약주 사러 나간 놈 오기 전까지만 쫓까 기다리드라고. (진숙 보며) 그래,
 우리 흥이! 산달이 언제라고 했제?
 진 속 얼마 안 남았어요.
 노 인 애 놓은 때 되면, 또 올거제? 니 애미가 상간 해 줘야지?
 진 속 (고개 끄덕끄덕) 예. 그럴게요.
 노 인 윤아, 너는 워뜨케 강서방같이 든든한 남편을 얻었냐잉? 내가 아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구마잉?
 미 진 학교에서... 학교 친구예요...
 노 인 그랬구마...

, 상 위에서 녹두전을 발견한다.

노 인 위디... 우리 남자, 손 많이 간다고 안 하더니 녹두전을 다 했냐? (하나 집으며)
우리 홍이가 자다가도 벌떡 하는 것이제?

노인, 진숙에게 녹두전을 먹인다.

진숙, 가만히 받아먹는다.

노인, 이번에는 잡채를 발견한다.

노 인 윤이 빠칠까봐서 윤이 좋아하는 잡채도 했구마! 우리 윤이가 어릴적 부터 잡채
귀신이제? (집어서 미진의 입에 넣어주는) 윤아, 실컷 들어라잉.

미진, 노인이 주는 잡채를 맛있게 받아먹는다.

미 진 (영접결에) 아버지도 줌... 드세요!

일동, 미진의 아버지 소리에 다들 미진을 본다.

노인, 감격에 겨운 듯 껄껄 웃는다.

노 인 음마? 남자 들었제? 우리 남자도 들었제?

노 파 들었어요.

노 인 우리 윤이가 월마 만에 아버지 소리를 했냐? (미진의 손 덱씩 잡고) 우리 윤이,
어릴적 부터 싹싹하고 밋지 않게 애살이 있드니만, 나이 들어서도 겁나게 이빠불
구만!

미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노인의 손 꼭 잡는 미진.

미 진 예. 많이 드세요, 아버지. (노파 보며)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맛있는 게 너무 많
아서... 잘 먹겠습니다...

노 파 오이... 마이 듣세... 그래야 또 기운 내 살제.

가족들,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노인,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강우에게 눈길이 간다.

노 인 있어 보드라고! 우리 큰사우는 워찌 그래 죽상이라?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는 사
람 표정이제잉? 말 해 봐. 무슨 일땀시 그란당가?

강우, 여전히 시무룩한 얼굴로 대답이 없다.

진숙, 강우를 찌른다.

진 숙 여보...

강 우 참나. 기가 막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 강우를 주목.

강 우 그래, (미진 보며) 아가씨는 연극도 감쪽같이 잘 하네. (진숙 보며)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쩐 이렇게 능청스러워? 다들 정신들 차려요. 정신들 차려! 지금 집에 안 들어간 지 이틀째예요. 집은 어떻게 됐는지 연락도 안되고, 부모님은 어찌고 계시는지 알 수도 없고! 친구들은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도시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충 노인네 실성에 속아주며 신선놀음이나 하고 있으면 일이 해결 됩니까?

진 숙 (만류하는) 여보!

**진숙, 노인의 눈치를 본다.
노인, 짐짓 심각한 표정 짓는다.**

노 인 우리 큰사우, 무슨 심화가 났는감? 그래, 다 털어놔 보드라고! 뭐땀시 그렇게 힘든지 털어놔봐!

강 우 뭐 때문에 힘드냐고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진 숙 (놀라는) 여보!

강 우 계엄군 새끼를 하나 죽였어요. 어제 거리에서 보자마자 죽자고 쇠몽둥이 휘두르며 달려드는데, 내가 먼저 선수 쳤지요. 갓 태어날 애랑 마누라 두고 죽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 새끼 머리를 갈기고, 눈 감고 죽으라고 했죠! 눈 풀리고, 사지 늘어진 거 보고 왔는데, (조소) 아마 살긴 힘들었을겁니다!

사람들 사이, 침묵만이 감돈다.

미 진 저도... (미진, 고개를 숙인다) 친구 명진이랑 유치원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었는데... 계엄군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때고 기물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난 너무 겁이 나서... 애들이 무섭다고 다가오는데, 내 옷꼬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미진, 얼굴을 감싼다) 그냥 외면하고 말았어요. 나만 살자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명진인 애들을 대신해 온몸으로 막다가 머리에 몽둥이를 맞고... 그리고... (미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낀다)

진 숙 학생이었어요. 어린 학생이었죠. 가게 구석에 숨어있는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학생이 내 발끝을 잡으며 사정했어요. 병원에 연락을 좀 해 달라고... 집에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계엄군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난 겁이 났죠. 어린 학생은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아이 입을 막아버렸죠... 잠시 후에... 애원은 끝이 났어요...

**강우, 놀란 듯 진숙을 본다.
진숙, 고개 숙인 채 말이 없다.**

인 호 식칼을 들고 덤비는데, 어쩔 도리 있나요? 고참은 쏘라고 했어요. 쏘라고! 안 쏘면 니가 죽는다고! 내 군모를 휘갈기며 쏘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요... 그저 허공에 대고 총을 한 방 갈겼을 뿐인데... 그런데... 그 아저씨,

갑자기 폭 고꾸라지더군요... 재수가 오지게도 없었죠...

, 모두 하나씩 자기의 파오를 말하고 나서 고개를 숙인다.

침묵이 감돈다.

그 침묵이 흐느낌으로 변한다.

노인이 입을 연다.

노 인 우지 마라... 우지들 말어... 내 새끼들... 우지 마라... 니들 죄는 내가 다 안고 갈 것이니께.

일동, 노인을 본다.

노 인 여기, 가족 아닌 사람 있나? 여기, 친구 아닌 사람 있으? 다들 그런 거지. 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워디있겠어. 불쌍한 내 자식들, 우지 마라... 우지 마... 나랑 님자는 전쟁도 겪었제. 당장 내 목숨 끊어지게 생겼는디 남의 사정 살필 수가 있나? 이 시절이 죄자? 이 시절에 태어나 갖가지 진통을 맞보는 거다, 이리 생각해라잉? 으이? 아프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있나? 진통 없이 아이 낳는 산모가 있나? 그저 다 그런 거라잉.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았으믄, 잊지만 말고, 잊지만 말고 더 열심히 살아야제! 암, 그래야제! 새댁도 아가씨도, 그리고 자네들도, 그리 살아야 산 목숨 보람 있지 않겠는가?

노 파 (눈물 훔치며) 이 영감, 정신 바짝 돌아왔나 했으만 그것도 아니요? 어찌 내 자식들 보고 새댁이며 아가씨라 하소?

노 인 그라제? 흥이 윤이는 가고 없지만, 이렇게 귀한 손이 와 있으니 내 더 바랄 것이 없제! 워디, 생일 축하 노래 한 소절 안 불러 줄란감?

일동, 눈물 닦으며, 머뭇머뭇 거리며, 서로 눈치 본다.

누군가의 선창을 시작으로 노래 시작한다.

다함께 생일 축하 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생일 축하 합니다~

노래 마치고 함께 박수 치는 사람들, 행복해 보인다.

이때, 갑자기 우당탕 대문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

곧이어 피투성이 된 조카가 포박당한 채 누군가에게 밀려 무대 위로 등장한다.

뒤따라 무장한 계엄군이 무대 위로 등장한다.

놀라는 사람들, 급히 압전.

10장 · 비극

무대.

몇 발의 총성 들려온다.

무대, 천천히 밝아진다.

총 맞고 고꾸라진 조카, 그 위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신 때만지는 노파.

진숙을 감싸고 선 강우, 미진을 꼭 끌어안은 인호.

그리고 이들을 막아 선 노인.

계엄군 쥐새끼같은 놈들! 여기서 신선놀음질하고 있어? (총구 겨누며) 누구부터 시작할
 까? 어떤 새끼부터 갈겨줄까!

노인, 양팔을 벌려 사람들 막은 채 호통 친다.

노 인 네 이놈! 내 새끼들한테 손끝이나 하나 까딱해봐라! 그 날도 바로 니 죽고 내 죽
 는 것이니께! 불쌍한 우리 새끼들, 뭐 더 괴롭힐 것이 있다고 이라는감? 좋은 소
 리로 할 때, 어서 돌아가드라고!

계엄군 (코웃음 치며) 어디, 노인네부터 보내줄까?

노 인 그래도 이놈이!

탕탕탕, 총성 소리.

노인,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다.

외마디 비명 지르는 일동.

미 진 아버지! 아버지!

노 파 영감, 영감!

인호, 분노에 부들부들 떨며 가슴 안에 숨겨둔 소총 꺼낸다.

계엄군 향해 소총 겨누는 인호.

계엄군, 픽 웃는다.

계엄군 이 새끼 뭐야? 너 뭘데 총을 가지고 있어? 아쭈, 이 새끼 혹시 탈영병 아니야?

인 호 개새끼...

계엄군 너 이 새끼, 작전 중 탈영이면 바로 총살이라도 할 말 없어, 새끼야! 알아?

인 호 (총 겨눈 손에 힘주며) 개새끼들!

노파, 인호를 막는다.

노 파 그라지 마소. 그라지 마소! 말로 해야제, 이렇게 총부리 겨눠서야 되겠소?
인 호 비키세요!
노 파 그 상처를 다 우짤라고, 그 회한을 다 우짤라고! 그만 하소!
인 호 비키시라니까요!

막는 노파와 밀쳐내는 인호의 실랑이.
탕탕탕, 총성 울린다.
인호의 총을 맞고 노파가 쓰러진다.
일동 비명.

인 호 (놀라는) 할머니!

인호, 쓰러지는 노파를 품에 안는다.

인 호 (절규) 할머니!
계엄군 뭐야 새끼? 너 아군이야? 그러면 진작부터 개기지를 말든가... 하극상은 죽음이
다, 몰라?

탕탕탕, 총성 울린다.
계엄군의 총 맞고 인호가 쓰러진다.

미 진 인호씨!

강우, 인호가 떨어뜨린 총 들고 계엄군에게 겨눈다.

계엄군 버러지 같은 새끼들! 돌아가면서 쇼 하고 있네! (천천히 다가오며) 어이, 자네도
짜 보려고? 공부 많이 하신 샌님같이 생겨서는, 쏘시겠다고? 이 새끼! 너들같이
먹물 많이 먹고 머리 빨간 새끼들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진 거야, 알어?

계엄군, 강우를 구타한다.
강우, 총도 떨어뜨리고 힘도 못 써 본채 버둥댄다.
계엄군이 겁에 질린 강우를 향해 총을 겨눈다.
탕탕탕, 총성 울린다.
강우, 고꾸라진다.

진 속 여보-!

계엄군 (진속 보며) 어이, 그쪽 남편이세요? 아이구, 그러고 보니 배가 하늘을 찌르겠
네? (총구로 진속의 배 겨누며) 그 안에 애가 있나? 이 새끼 아들? 머리 빨간
새끼 아들이면 자식새끼도 빨간색이겠네?

계엄군, 진속을 총구로 위협한다.
진속, 앉은 채로 떨며 뒷걸음질 친다.
계엄군, 진속의 머리채 잡는다.
이때, 노인의 시신을 돌보던 미진이 강우가 떨어뜨린 총을 잡고 일어난다.

뒤통수를 향해 접시 던지는 미진.

미진 야, 이 새끼야!
계엄군 에잇! 씨발! (진숙의 머리 잡은 채 미진 돌아보며) 넌 뭐하는 년이야? (웃음) 어쭙, 너도 한 번 해 보려고?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아나? 다치기 전에 얼른 내려와, 언니!

미진, 부들부들 떨며 계엄군을 겨누고 있다.
탕탕탕, 총성 울린다.
계엄군, 미진의 머리채 쥐어뜯는다.
계엄군, 약간 비틀거린다.
총 떨어뜨리고 발발 떠는 미진.
미진 향해 총구 겨누는 계엄군.
탕탕탕, 총성 울린다.
미진, 경직된 채로 섰다.
미진과 계엄군이 동시에 고꾸라진다.
진숙, 쓰러진 사람들 사이를 미친 듯이 파헤치고 다닌다.

진숙 아버지... 어머니... 여보! 미진씨! 인호씨! 아저씨! 다들 일어나요! 얼른! 다들 일어나! 빨리!

울부짖으며 절규하던 진숙, 갑자기 극심한 산통 느낀다.

진숙 (배 움켜쥐며) 아... 으윽...

진숙, 쓰러진 채 배 움켜쥐고 외마디 비명 지른다.
진숙의 비명 가빠지며 무대 천천히 암전된다.
무대 완전히 암전되면, 째질 듯한 건강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터져 나온다.

11장 · <오늘로>

암전된 무대.
조명, 천천히 약간 밝아진다.
맨발에 깨끗한 흰 옷을 걸친 영혼들이 하나씩 걸어 들어오며 읊조린다.
얼굴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았다.

영혼1 누가 보았나. 그 날의 참상을.

영혼2 누가 들었나. 그 날의 울부짖음을.
영혼3 누가 맡았나. 그 날의 피 냄새를.
영혼4 누가 만졌나. 폭력과 배신의 옷자락을.
영혼5 누가 느꼈나. 당신의 죽음을.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며 춤을 춘다.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춤이다.
상처를 입은 듯한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동작이 반복된다.

영혼1 나는 보았네. 생의 마지막 순간, 그 문턱에서 빛나는 가장 순수한 진실을.
영혼2 나는 들었네. 절규하는 울음소리 안에 섞인 사랑하는 이를 향한 갈구를.
영혼3 나는 맡았네. 도시 가득한 핏물에서 풍기는 피비린내 속에 아련하게 느껴지던 향기로운 풀 향기를.
영혼4 나는 만졌네. 두려움에 떠는 젊은 군인의 손끝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온기를.
영혼5 나는 느꼈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순간, 그 어두운 막을 뚫고 비쳐오던 환한 빛 한 줄기를.

구슬픈 곡조에 맞추어 춤추는 영혼들.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그들의 춤이 아름답다.
너울거리는 옷자락 들 위로 환한 조명이 비친다.
영혼들, 꽃을 뿌리며 원을 만들며 노래한다.

영혼1 사랑이 떠나갔네.
영혼2 친구가 죽어갔네.
영혼3 가족을 빼앗겼네.
영혼4 젊음이 바스라지네.
영혼5 청춘이 눈물로 여울지네.
영혼들다함께 (천천히) 그리하여, 쉽게 지지 않을 소중한 꽃 한 송이 활짝 피었네.

영혼들, 노래하며 한데 모여 마치 꽃의 형상을 만든다.
천천히 암전.

12장 · 정신과 상담 ②

정신과 상담실.

흐릿한 조명.

구슬픈 여인의 흥얼대는 콧노래 소리 들려오고.

무대 중앙에 두 개의 등받이 일어난 침대 놓여있다.

무대 뒤편에는 여전히 유리판 놓여있다.

각각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상황 진술하는 진숙과 유정.

진 숙 사람들이 모두 죽어나간 틈 속에서, 난 아들을 낳았어요. 피를 많이 흘렸죠. 그때 내 나이가 서른 넷. 노산이었죠.

유 정 언니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아이가 나오려고 하나 봐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몸이 허공에 붕 떠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니가 피를 많이 흘려요! 저러다가 기절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 몸은 점점 더 높이, 높이, 허공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진 숙 아직도 생생해요, 그 날의 기억이.

유 정 아직도 선명하군요, 그 날의 기억이.

진 숙 난 가끔 그리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유 정 이렇게 다시 세상에 나오며,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언젠가 한번쯤... 언젠가 한번쯤은...

콧노래 멈춘다.

진숙과 유정,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다.

동시에 눈을 뜨고, 동시에 침대에서 내려오는 진숙과 유정.

진숙과 유정, 침대 뒤로 돌아나가다가 서로 마주친다.

진 숙 (유정 보고 놀라는) 어머!

유 정 아줌마?

진 숙 아니, 그 경우 없는 아가씨가 여긴 웬일로?

유 정 그러는 아줌마야 말로, 제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나보죠? 갱년기 우울증 상담? 치료 가능하다고 하죠?

진 숙 늙으면 정신도 성격도 고장 나기 마련이죠. 나 보다는 아가씨가 여길 찾아온 게 더 신기한데? 예의를 배우고 싶으면 정신과가 아니라 문화센터로 가든가!

유 정 왜, 너무 고리타분하신 분이시라서 갱년기 약도 안 듣는다고 하든가요?

진 숙 뭐예요? 이 아가씨가 정말!

유 정 아줌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언성 높이며 노려보는 두 사람.

팽팽한 긴장 감돌고.
두 사람, 갑자기 몸의 힘을 뺏다.

진 숙 우린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군.
유 정 생각이 다르니까요.
진 숙 그렇지? 우린 많이 다르지?
유 정 살아 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진 숙 그런데 아가씨... 낮이 익어.
유 정 아줌마도 마찬가지로. 익숙한 얼굴이야.
진 숙 답았어... 아주 답았어...
유 정 이만큼 나이를 먹었다면 꼭 아줌마 같은 얼굴일 것 같아.

진숙과 유정, 동시에 서로를 보며 중얼거린다.

진 숙 (동시에) 답았어. 정말 답았어.
유 정 (동시에) 답았어. 정말 답았어.

진숙이 먼저 유리판 뒤로 돌아나간다.
유리판 뒤를 걷는 진숙, 앞면의 유정과 마치 거울 보고 선 듯 마주본다.
잠시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
이번에는 진숙이 유리판 앞으로, 유정이 뒤편으로 돌아 걷는다.
또 다시 교차점에서 만나는 두 사람.
이번에도 멈추어 서서 서로를 응시한다.
서로를 바라보는 애잔한 광경에서 압전.

13장 · 망자들을 위한 곳, 놀이판

암전된 무대, 서서히 밝아온다.
정갈한 복소리 들려온다.
무대 중앙 쪽 천정에서 색색의 고운 천들 늘어뜨려져 있다.
복소리 맞추어 하얀 모시 한복 입은 예인들이 무대 위에 등장한다.
다섯 명 정도 되는 예인들, 무대에 서서 사방에 절을 한다.
한 예인의 구슬픈 창 곡조가 시작된다.
예인 하나가 나와 청아하게 노래한다.

예 인 상처 입은 영혼들. 눈물로 여울진 영혼들.
이제 그만 훨훨 잊고. 좋은 곳으로 갈지어다.
나는 안가 못가네. 미련이 남아 못가네.
그런 소릴랑 훌훌 털고. 좋은 곳으로 갈지어다.

신비한 살풀이춤 한바탕 벌어진다.

살풀이춤이 잦아지면 바라를 든 예인 등장하여 바라춤을 춘다.
바라춤 끝나면, 예인들 서너 명이 다시 무대에 등장한다.
무대 중앙 천정에서 늘어뜨린 천들을 하나씩 부여잡고,
빙빙 돌아가며 천을 엮어 땅기 시작한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무대에 등장해 천을 땅는 무리들 주변을 돈다.
마치 답돌이를 하는 모양새다.
간간히, 선두에 선 사람이 꽃가루를 뿌려준다.
답돌이 하듯 천 땅는 무리 주변 도는 일행 중에,
진숙과 유정의 모습 보인다.
천 땅기가 끝나고, 노래도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줄지어 퇴장한다.
무대 위에는 진숙과 유정만 남는다.
뭔가 아쉬운 듯, 주변을 서성이는 두 여자.
이윽고, 서로를 발견하고 멈추어 선다.

유 정 아줌마!
진 숙 이게 누구야? 아니, 젊은 아가씨가 이런 데는 왜 왔어요?
유 정 그게... 그저...
진 숙 나야 보낸 이들 많으니, 그 사람들 가는 길 편안하게 해 주려고 왔다지만, 아가
씬 웬일일까?
유 정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점집엘 갔거든요. 사기꾼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찾아
간 무당이 그러더군요. 억울하게 죽고 편히 천상에 못 드는 영혼들이 주변에 있
으니, 그네들 가는 길 위한 놀이판 한 번 벌여주라고. (쑥스러운)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 숙 (웃음) 아니, 그래 젊은 아가씨가 무당 말 믿고 겁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유 정 (머리 굽적굽적)
진 숙 오호라, 그래서 지난 번 그 가게에서 초를 봤구나! 난 아가씨가 그걸 사다 뒤에
쓰려나 궁금했어요!
유 정 네. 다른 걸로 준비했어요.
진 숙 저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유 정 이러지 말고?
진 숙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한 잔 하겠어요?
유 정 차요?
진 숙 거절 하지 말아요. 여기서 가까워요.

유정,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인다.
진숙, 유정의 팔짱을 낀다.
두 여자, 서로를 보고 웃음 터뜨리며 퇴장한다.
무대 암전.

14장 · 뒤뜰이, 수다

집.

무대 중앙에 작은 침대 하나와 의자 두 개, 테이블 놓여있다.

별다른 가구나 장치는 없다.

적당한 조명 비춘다.

테이블 주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유정이 앉아있다.

곧, 쟁반위에 차를 담고 진숙이 등장한다.

테이블 위에 차를 세팅하는 진숙과 돕는 유정.

- 유 정 전 강유정이에요. 올해 스물여덟살이죠.
- 진 숙 스물여덟?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태어났죠. 그 녀석... 아빠 없이 홀로 자라면서도 속 한 번 썩인 적 없어요. 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녀석이 내 자랑인걸요.
- 유 정 좋으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늘 나 때문에 속을 썩죠.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하고, 효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제는 결혼 문제까지 말쟁이네요.
- 진 숙 아니, 왜?
- 유 정 시어머님 되실 분께서,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날 받아놓고 미루기가 벌써 몇 달 쯤.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 혼자인데, 부모님께서 가슴 졸이실만 하죠. 시어머님은 아들이 무슨 애인인 줄 알고 계세요!
- 진 숙 그건 아가씨가 모르는 소리! 원래 아들은 엄마의 영원한 애인이자 로망이에요. 몰랐어요?
- 유 정 그건 아니죠.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아들은 엄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부인의 것이죠. 그리고 그 남자가 이룬 가정의 것이고요.
- 진 숙 세상에, 섭섭해라! 그러면 엄만 뭐가요? 그저 뼈빠지게 눈물로 가슴으로 키워낸 잘난 아들을 며느리에게 바치는 사람인가요?
- 유 정 딸들은 안 그런가요, 뭐? 세상이 변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누구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 진 숙 하지만 우리 며느린 좀 심해요.
- 유 정 뭐가요?
- 진 숙 내 아들은 물론, 저가 나온 아이까지 모두 제 소유물인 줄 안다니까요.
- 유 정 어떻게요?
- 진 숙 아니 글썄, 내가 제 아일 데리고 자면서 좀 악몽을 꿨나 봐요. 잠깐 잠꼬대를 좀 했더니, 다신 저 딸을 나한테 안 맡기는 거 있죠?
- 유 정 어머니!
- 진 숙 내 손주, 내가 보면서도 항상 눈치예요.
- 유 정 그건 며느님이 좀 심하셨네요!
- 진 숙 그러니 아가씨, 그러지 말고 현명하게 잘 지내요.
- 유 정 (웃음) 그래야겠어요.

진 숙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알게 모르게 질투를 하는지도 몰라요.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우리가 힘겹게 일구어 놓은 것들, 그 위에서 너무나 풍족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 잊혀지는 게 슬프기도 하고...

유 정 언젠가는, 저희 역시 또 다른 세대에게 밀려나고, 잊혀질 텐데요...

진 숙 그런가?

유정, 마주보고 웃는다.

진숙과 유정, 차를 마신다.

진 숙 참, 이런 때 꺼내 놓아야겠네!

유 정 필요?

진숙,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초 한 자루를 꺼낸다.

1장에서 진숙과 유정이 서로 사졌다고 티격태격하던 초이다.

진 숙 생각나죠?

유 정 어? 그 날, 안 쓰셨어요?

진 숙 웬지, 간직하고 싶어서... 유정씨 만나 켜라고 그런 생각 들어나봐요.

진숙, 초에 불을 붙인다.

조명, 약간 어두워진다.

무대 뒤편으로 커다란 초와 초에 새겨진 글씨들이 그림자로 뜬다.

진 숙 초 마디마디에 한점한점 글씨를 새겼다고 하는데... 사실 난 보이질 않아요. 돋보기를 쓰고도 시력이 나빠워서...

유정, 세밀하게 초를 살핀다.

유정, 천천히 초에 새겨진 글씨를 읽기 시작한다.

유 정 당신 가는 길, 밝히립니다. 당신 가는 길, 지피립니다.

몸은 타고 영혼은 녹아 허공 속 한 줌 재로 사라질 지언정,

당신 가는 길, 밝히립니다. 당신 가는 길 지피립니다.

잠시 감상에 빠지는 진숙과 유정.

진 숙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지필 수 있을 까?

유 정 벌써, 그렇게 사셨는걸요. 앞으로는 저의 몫이죠.

진숙과 유정, 서로 마주본다.

진 숙 시간이 늦었네요. 괜찮으면, 자고 가겠어요?

유 정 어차피 늦는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니,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진 숙 이렇게 그리운 마음이 드는 날이면, 꼭 악몽을 꾸곤 하죠.

유 정 이렇게 서글픈 마음이 드는 날이면, 꼭 악몽을 꾸곤 해요.
진 숙 오늘 유정씨랑 같이 잠들면, 편안하게 잘 잘 것 같은데.
유 정 엄마 같을 것 같아요... 언니 같을 것 같아요...

유정, 함께 손을 잡고 작은 침대로 향한다.
침대 위에 누워 꼭 끌어안는 두 여자.
무대 천천히 암전되며, 행복한 꿈을 연상시키는 신비한 조명 비춘다.
이윽고, 무대 완전히 암전된다.